

5·18 세계 인권운동 이끈다 ③ 민주화 현장 누비는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반폭력·빈민 구제 온몸 투쟁

인권·평화 수호 세계 곳곳서 활동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광주인권상' 수상자들은 5·18 민중항쟁의 뿌리인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다. 특히 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수상자들은 이 시간에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광주 정신을 전하고 있다.

6회 수상자로 선정된 와르다씨는 수상금으로 받은 5만달러를 도시빈민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사용해, 자카르타 지부를 14개로 늘렸다. 이 때문에 UPC는 30여명의 직원과 500여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활동하는 큰 단체로 성장했다.

"광주인권상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고, 우리 단체의 네트워크를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도의 군부정부에 의해 구금돼 시상에 참석하지 못했던 8회 공동수상자 이름 샤말라(여·36)씨는 최근 7년여간의 구금생활을 끝내고 활동을 재개했다. 인도 정부는 이쯤에서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이후 5·18 기념재단 등이 석방운동을 펼치고, 인도에서도 올해의 NGO상 후보에 오르는 등 국내외의 압력이 가해지자, 그를 풀어주었다.

솔치료센터를 건립했다. 이 밖에도 7회 수상자인 양카나 날라파이스트(여·51)씨는 수상 이후 명성이 높아져 태국 제헌회의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수상자인 말라리아 조아(여·30)씨는 정부에 의해 아프가니스탄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반면, 자신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부천영화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다.



5·18 현철 5·18 민중항쟁 28주년을 사후 앞둔 15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5·18정신을 기리는 현철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나원침 (7507)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Text includes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and contact information: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방 : 061) 337-0571'.



Article titled '5·18 대표시 원본과 다른 까닭?' (Reasons for differences between original and representative 5.18 poems?). It discusses how specific poems were selected for the '5.18 Poem Competition' and how their titles and content were modified. It mentions the poem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심자가여' and its author Kim Jun-tae.

국민 16% 아직도 "5·18 폭동" 66% "진상규명 아직 미흡하다"

국민 10명 중 1.6명은 5·18 민중항쟁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 민중항쟁이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2.9%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11.6%였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9.4%,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9.0%로 각각 나타났다.

"내 아내와 춤추다니" 환기 주목질 ○3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춤을 추는 장면을 목격 후 이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15일 새벽 2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도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춤을 추고 있던 B(33)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 ○이날 우연히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아내를 본 A씨는 처음 보는 남성에게 안겨 블루스를 추고 있는 것을 본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결국 경찰에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조사에서 B씨는 "업무차 서울에서 내려와 일을 마친 후 잠시 들른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자와 춤을 췄을 뿐인데 갑작스레 폭행당해 억울할 따름"이라고 쓴웃음.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을 비롯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관련 4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전사모 등 4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을 명예훼손

5·18 단체, '전사모' 등 명예훼손 고소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광주 서부경찰 사 이버수사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전사모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5·18은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 다' 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등에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5·18 기념재단, 5·18 구속부상자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TOPE skin care products. It features a close-up of a woman's face on the left and a product bottle on the right. Text includes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입하다' and 'TOPE'.